

학부제 도입의 정당성

1.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가 학부제로의 이행을 선언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커녕 그 내부에서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부제 도입이 비인기학과 기피풍조를 심화하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 악화, 전공교육의 전문성이 약화와 학생자치활동이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반대 논의도 있지만, 온전한 형식의 학부제가 아닌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도기적 형식의 학부제를 염두에 둔 논의들로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든 논의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부제가 실시되면 학생들이 기존체제에서보다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며, 대학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제의 도입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양인을 양성하기에 현 체제보다 적합하다는 점에서 학부제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의 의미

대학은 직업의 장과 학문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대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측면으로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는 전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대학이 직업훈련소로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소로서의 대학의 의미만이 강조될 때,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양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직업훈련소로서의 대학에서 학생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창조된 게임이나 프로그램 하나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덕목은 단순한 전문성보다는 창의성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업훈련소로서의 대학에서 학생은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만을 공부하게 되고, 학생들은 결국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훈련의 기회를 점점 잃어가게 된다. 오히려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의 강조가 강조될 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에서 학생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곧 교양을 습득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통합되는 경우에 창의적 사고의 발현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형성된 교양은 창의적 사고에 기여한다. 즉, 시대는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의 강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학부제의 정당성

학부제는 위에서 논의한 대학의 의미, 곧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은 정당하다. 우선 학부제 하에서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현재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치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겨를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한 대학의 전공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서울대학교 신입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교체를 희망하는 학생이 인문대에서는 전체 학생의 60.3%, 자연대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47.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제의 도입은 이러한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준다. 학부제가 실시되면 학생들은 전공 없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뿐 아니라 동아리 등 다른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학생들의 적성의 발견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적성에 맞는 전공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것임은 자명하며, 이는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에 부합한다.



오광석
(사회과학계열 05)

또한 학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대학 교육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제대로 된 교육-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이 존재하는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도 그 인원이 많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서울대의 정원은 약 4000명인데 비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정원은 약 3000명 수준이다. 이보다 강의를 거의 교수가 학생에게 주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이다. 하지만 학부제가 시행되면 대학의 정원은 감소한다. 기초학문 외에는 대학에서 분리되어 실용 학문 분야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학정원의 감소는 교수1인당 학생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교수와 학생간의 피드백이 있는 강의의 가능성이 증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학부제의 도입을 통해서 교육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에 부합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부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양을 습득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전문적이지만 오직 특정분야에만 국한되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스페셜리스트만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더 이상 한 분야만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성과 다양한 사고를 가진 인재인데, 한 분야의 지식만을 가진 사람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는 다방면의 지식을 서로 조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현대사회에서는 전문성과 교양을 모두 갖춘 제너럴리스트, 곧 교양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학부제하에서 충족될 수 있다. 학부제는 “기초학문에 대한 강제교육”이기 때문이다. 학부제 하에서는 현재 부족한 교양을 채우기 위한 기초교육이 강화된다. 여기에 학부제의 시행의 세부지침으로 학문영역을 일정한 기준으로 몇 분야로 나눈 후 각 분야별로 일정 학점 이상 이수를 의무화한다면 학부제 하에서 교양 수업 또한 일정 부분에 쏠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은 거의 완벽하게 가능하다. 교양교육의 강화는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의 핵심요소이다.

4. 마치면서

학부제의 도입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부제하에서는 비인기학과의 기피풍조를 심화되고, 학생들 간에 인간관계가 악화되며, 전공교육의 전문성이 하락하고, 학생자치활동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면서 학부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부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보완이 가능하다. 실제 학부제가 실시되면 기초학문을 제외한 실용학문은 대학에서 분리되어 대학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비인기학과라고 불리는 학과만이 존속하기에 비인기학과 기피풍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학부제에서는 학과 선택에 성적과 같은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경쟁 과열로 인한 학생들 간의 유대의 악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학부제에서는 교양교육의 시간이 증가하는 것일 뿐 전공 교육 시간은 유지되므로 전문성도 약화되지 않으며, 새로운 자치단위의 편성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감소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다.

오히려 학부제는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 강화에 기여한다. 학부제 하에서는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 대학교육의 질이 향상되며, 폭넓은 교양의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화 사회가 학문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의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부제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제의 실시는 정당하다.

이 글은 2005년 1학기 <대학국어> 과제로 쓴 [학부제의 의의와 정당성]라는 소논문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원래 논문은 사회과학계열 B반 김수국 오광석 이황호 임종서 이소현이 공동으로 작성한 총 A4용지 20쪽 분량의 글이었음을 밝힌다.